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관계

남문희*, 김혜옥**
대동대학교 간호학과,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Mun-Hee Nam*, Hae-Ok Kim**
Dept. of Nursing, Daedong College*
Dep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아존중감, 감정노동과 전공만족도 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와 K도 소재 임상실습을 경험한 199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15년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이었다. 자료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는 3.53, 3.26, and 3.46점(5점 척도)이었고, 상관관계 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감정노동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결과는 대학생활만족도, 학업성적, 자아존중감 이었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4%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위해서 대학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학업성적 관리가 요구된다.

주제어 : 임상실습, 감정노동,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were 199 nursing students who had clinical practice that located in B- city and K- do during the period from August 3rd to 17th, 2015. The average mean scores for self esteem, emotional labor, and major satisfaction were 3.53, 3.26 and 3.46 (5 scale). Pearson's correlation revealed self estee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while emotional labor had a negative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Factors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major satisfaction included self esteem,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and level of academic scores. These factors explained 34.0% of variance in major satisfaction. Thus, the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elf esteem, and academic score were required to manage for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

Received 16 November 2015, Revised 30 December 2015
Accepted 20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Hae-Ok Kim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Email: hok503@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크게 인간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교육과 이를 적용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임상실습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임상현장에서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실습교육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시간을 100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특히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학생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과 태도, 간호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한다[2].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동안 간호직에 대한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망스러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간호행위 시 이론과 실제의 차이, 간호사들의 비교육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이상적인 간호직과 실제의 간호직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간호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생기기도 한다[3]. 이러한 임상실습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학생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추후 간호사로 성장 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게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3]. 또한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동안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존감의 저하와 임상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등 무가치감을 경험하여 임상실습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떨어짐을 경험한다[4]. 이러한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와 관련되며[5-6], 대학생생활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

임상현장에서 감정노동은 조직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표현규칙에 맞게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정의되며[8], Morris 등은 구성원이 느끼는 감정과 조직에서 표현해야 하는 감정 사이의 부조화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난다고 하였다[9]. 간호사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간호를 수행하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안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환자만을 위해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10]. 최근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같은 다양한 정신, 심리적 문제들이 직무만족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으며[10-11], 간호학생도 임상실습 과

정에서 간호사 옆에서 실무행위를 하는 동안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관찰하고, 고객에 대한 감정노동뿐만 아니라 실습과제 등 평가로 병원 직원에 대한 감정노동까지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의 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은 전공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4].

전공만족은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며, 전공만족도는 진로의식형성과 직업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시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학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 성적에 맞춰 합격위주로 진학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선택이유에 대한 연구조사를 살펴보면 대학교육이 학문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직업을 위한 교육현장으로 인식되었고, 상대적으로 취업에 대한 관심이 신입생 때부터 상당히 높았으며[12], 이로 인하여 전공과목이나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경우가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대학을 선택할 때 적성과 흥미보다 취업이 잘 되거나 주의의 권유, 높은 취업률을 고려해서 진학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13], 타 학과와 다르게 학기 초 부터 해부학, 생리학, 기본간호학 및 실습 등의 전공 기초과목을 배우게 되어 용어가 생소하고 암기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학과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고 있다[14].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동안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존감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이 전공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15]. 임상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자기주장을 못하고 눈치를 보는 등 무가치감을 경험하여 임상실습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2]. 또한 실습현장에서 간호학생은 환자와 가족 구성원을 지지하고 관리하면서 자신의 무능력감이니 의학적 지식의 수행에서 많은 정신적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고, 간호사가 경험하는 감정노동은 간호학생들에게도 전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져 학생의 전공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에서 간호학생의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은 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이 간호사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감정노동이 소진, 직무만족, 업무성과, 이직의도 등으로 연결된다는 연구[6,10,16], 간호학

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에 대한 연구[5,6,7,16,]와 임상실습경험 스트레스관련 연구[17]가 주를 이루고 있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간호학생의 감정노동,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변수를 포함한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및 전공만족도 정도를 분석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대학생 생활에서의 전공만족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다섯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감정노동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실습 후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실습 후 자아존중감과 감정노동이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의 1개 간호학과와 K시 소재 1개 간호학과에서 3학년,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을 최소 한 학기 15주 이상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였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K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KU IRB 2015-0722)을 받았다. 연구 참여의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및 연구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접촉을 통한 자료 수입 전 과정은 연구보조자가 직접하였고, 한 학기 과정을 마친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들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을 마친 설문지는 개별 봉투를 사용하여 동봉하도록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전공만족도관련 선행연구결과를 감안하여 예측변수 11개로 하였을 때 효과크기 .30, 검정력 .95, 유의수준 .05으로 하여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34명의 표본수가 산정되었다. 중도탈락률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 21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내용의 완성도가 떨어진 11부를 제외한 199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자료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1)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학년, 성별, 종교, 학업성적, 학과 선택동기, 대학생활만족도, 간호에 대한 만족도, 월 용돈을 포함한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기자각의 정서적 차원으로 자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적 요소로 보는 것인데[18], 자아의 상이한 속성들에 대해 개인이 어떠한 느낌을 갖느냐 하는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측정 요인을 Kim 등[19]의 연구를 기초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총 32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Kim 등[1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었다.

3) 감정노동

개인이 효과적인 직무수행이나 조직 내 적응을 위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 감정상태와 조직의 감정표현규범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감정표현에 차이가 나타날 때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개인적 노력을 의미하며[8], 본 연구에서는 Morris와 Feldman이[9] 개발한 감정 노동 도구로 Song[20]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감정노동의 빈도, 감정표현 규범에 대한 주의정도, 감정의 부조화로 구성된 감정노동 도구를 간호학생의 임상실습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하기 위해 병원에서 느끼는 감정표현을 임상실습현장에서 경험하는 감정노동 빈도나, 감정표현 규범, 감정의 부조화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항으로 3개의 하부영역 즉 감정노동의 빈도(3문항), 감정표현 규범에 대한 주의정도(3문항), 감정의 부조화(3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Song의[20]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7이었다.

4) 전공만족도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Lee[21]연구에서 사용한 전공만족 관련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 test 혹은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99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1.6세로 21세가 67명(33.7%)로 가장 많았고, 3학년 122명(61.3%), 4학년 77명(38.7%)이었으며, 여학생이 184명(92.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있다' 72명(36.2%), '없다' 127명(63.8%)이었고, 성적은 상위권 29명(14.6%), 중위권 154명(77.4%), 하위권 16명(8.0%)이었으며, 전공 선택 동기는 직업의 기회 74명(37.2%), 적성 62명(31.2%), 성적 52명(26.1%), 부모나 주변의 권유 11명(5.5%)순이었다. 대학생활의 만족도는 보통 117명(58.8%), 좋음 49명(24.6%), 나쁨 33명(16.6%) 순이었고, 간호만족도는 보통 91명(45.7%), 좋음 90명(45.2%), 나쁨 18명(9.0%)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용돈은 21-30만원 71명(35.7%), 31-40만원 53명(26.6%), 20만원 이하 46명(23.1%), 41만원 이상 29명(14.6%)순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53점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26점이었고, 하부영역으로 감정노동의 빈도 3.64점, 감정표현 규범에 대한 주의정도 3.08점, 감정의 부조화 3.05점이었다. 종속변수인 전공만족도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4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199)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s (year) (M±SD=21.60±2.24)	≤20	54	27.1
	21	67	33.7
	22	49	24.6
	≥23	29	14.6
Grade	3rd	122	61.3
	4th	77	38.7
Sex	Male	15	7.5
	Female	184	92.5
Religion	Yes	72	36.2
	No	127	63.8
Level of academic score	High	29	14.6
	Medium	154	77.4
	Low	16	8.0
Selection motivation of nursing	Interest	62	31.2
	Academic score	52	26.1
	Job opportunity	74	37.2
	Advice	11	5.5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Good	49	24.6
	Moderate	117	58.8
	Bad	33	16.6
Satisfaction of nursing	Good	90	45.2
	Moderate	91	45.7
	Bad	18	9.1
Household monthly income	≤20 Ten thousand Won	46	23.1
	21-30 Ten thousand Won	71	35.7
	31-40 Ten thousand Won	53	26.6
	≥41 Ten thousand Won	29	14.6

<Table 2> Variables of Descriptive Statistic (n=199)

Variables	M±SD*	Min	Max	
Self Esteem	3.53±0.35	2.13	4.63	
Emotional Labor	3.26±0.52	1.89	5.0	
	Frequency of emotional expression	3.64±0.67	1.33	5.0
	Level of emotional caution	3.08±0.60	1.0	5.0
	Emotional dissonance	3.05±0.68	1.0	5.0
Major Satisfaction	3.46±0.47	2.11	5.0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의 차이검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학업성적 (F=3.235, p=.04), 대학만족도(F=4.50,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이 중위권 이상에서 하위권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

통 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감정노동 정도는 종교 (t=2.43, p=.02), 대학생활 만족도 (F=6.53, p<.001), 간호만족도 (F=5.8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한 결과 종교가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감정노동이 높았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은 그룹이 높은 집단 보다 감정노동 정도가 높았으며, 간호생활 만족도는 보통 그룹이 '좋다'고 한 집단보다 감정노동 정도가 높았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적 (F=7.14, p<.001), 직업선택동기(F=4.141, p<.001), 대학생활만족도(F=36.1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이 상위권이 하위권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전공선택에서 주위의 권유에 의해 대학을 선택한 경우보다 적성이나 흥미가 맞아서 직업을 선택한 경우 높았으며, 대학생활 만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다<Table 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의 차이검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학업성적 (F=3.235, p=.04), 대학만족도(F=4.50,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이 중위권 이상에서 하위권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 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감정노동 정도는 종교 (t=2.43, p=.02), 대학생활 만족도 (F=6.53, p<.001), 간호만족도 (F=5.8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한 결과 종교가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감정노동이 높았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은 그룹이 높은 집단 보다 감정노동 정도가 높았으며, 간호생활 만족도는 보통 그룹이 '좋다'고 한 집단보다 감정노동 정도가 높았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적 (F=7.14, p<.001), 직업선택동기(F=4.141, p<.001), 대학생활만족도(F=36.1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이 상위권이 하위권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전공선택에서 주위의 권유에 의해 대학을 선택한 경우보다 적성이나 흥미가 맞아서 직업을 선택한 경우 높았으며, 대학생활 만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of Self Esteem, Emotional Labor,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9)

Variables	Categories	Self Esteem				Emotional Labor			Major Satisfaction				
		M±SD	t/F	p Scheffé		M±SD	t/F	p Scheffé	M±SD	t/F	p Scheffé		
Ages (year)	≤20	3.55±	0.36	0.18	.91	3.28±	0.54	0.19	.90	3.44±	0.36	0.33	.80
	21	3.52±	0.32			3.27±	0.59			3.47±	0.45		
	22	3.50±	0.32			3.21±	0.47			3.44±	0.41		
	≥23	3.54±	0.47			3.26±	0.41			3.53±	0.56		
Grade	3rd	3.54±	0.35	0.81	.42	3.27±	0.52	0.33	.74	3.48±	0.44	0.62	.532
	4th	3.50±	0.36			3.24±	0.51			3.44±	0.44		
Sex	Male	3.47±	0.60	0.37	.72	3.09±	0.50	1.31	.191	3.46±	0.72	0.03	.97
	Female	3.53±	0.33			3.27±	0.52			3.46±	0.41		
Religion	Yes	3.54±	0.38	0.34	.74	3.14±	0.52	2.43	.02	3.50±	0.46	1.62	.11
	No	3.52±	0.34			3.32±	0.51			2.93±	0.42		
Level of academic score	High ^a	3.56±	0.31	3.23	.04	3.36±	0.54	0.62	.54	3.69±	0.43	7.14	<.001
	Medium ^b	3.54±	0.34		a,b>c	3.24±	0.52			3.45±	0.41		a>c
	Low ^c	3.31±	0.49			3.22±	0.44			3.20±	0.50		
Selection motivation of nursing	Interest ^a	3.60±	0.32	2.33	.08	3.13±	0.50	2.29	.08	3.62±	0.45	4.41	<.001
	Academic score ^b	3.56±	0.30			3.25±	0.56			3.43±	0.41		a>d
	Job opportunity ^c	3.46±	0.37			3.36±	0.49			3.39±	0.41		
	Advice ^d	3.41±	0.57			3.35±	0.53			3.25±	0.43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Good ^a	3.65±	0.28	4.50	0.01	3.05±	0.50	6.53	<.001	3.80±	0.40	36.18	<.001
	Moderate ^b	3.47±	0.32		a>b	3.30±	0.48		a<c	3.40±	0.33		a>b>c
	Bad ^c	3.54±	0.51			3.43±	0.59			3.19±	0.53		
Satisfaction of nursing	Good ^a	3.58±	0.33	2.31	.10	3.12±	0.52	5.82	<.001	3.67±	0.38	.63	.534
	Moderate ^b	3.50±	0.33			3.38±	0.50			3.36±	0.36		
	Bad ^c	3.40±	0.53			3.31±	0.49			2.93±	0.41		
Household monthly income	≤20 Ten thousand Won	3.42±	0.41	1.39	.25	3.21±	0.49	0.93	.43	3.45±	0.50	1.39	.25
	21-30 Ten thousand Won	3.58±	0.32			3.31±	0.53			3.53±	0.42		
	31-40 Ten thousand Won	3.52±	0.37			3.30±	0.55			3.44±	0.38		
	≥41 Ten thousand Won	3.57±	0.29			3.15±	0.47			3.34±	0.45		

3.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관련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전공만족도는 자아존중감($r=.336,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정노동($r=-.154, p<.05$)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Mental health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level

Variables	Self Esteem	Emotional Labor	Major Satisfaction
Self Esteem	1		
Emotional Labor	.050	1	
Major Satisfaction	.336**	-.154*	1

* $p<0.05$, ** $p<0.01$

3.5 대상자의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학업성적과 전공선택동기, 대학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감정노동에 대한 결과 변수인 전공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수를 예측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 중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고, 회귀분석을 위해 다중공선성, 잔차 및 특이 값을 진단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50으로 자기상관이 없고,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지수는 자아존중감 .904, 감정노동 .893으로 공차한계가 1.0이하이고,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자아존중감 1.112, 감정노동 1.120으로 나타나 기준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0.7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4%이었다. 전공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은 대학생할 만족도($\beta=.489, p<.001$)이었고,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감($\beta=.267, p<.001$)이었다. 그리고 학업성적($\beta=.195, p=.044$)에 따라 전공만족도 차이가 있었다.<Table 5>.

<Table 5> factors related to internet addiction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246	.317		7.088	<.001	
Level of academic score	Low					
	Medium	.241	.119	.195	2.029	.044
	High	.052	.099	.050	.526	.600
Selection motivation of nursing	Interest					
	Academic score	-.171	.122	-.090	-1.411	.160
	Job opportunity	-.083	.066	-.092	-1.269	.206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Advice	-.114	.070	-.116	-1.640	.103
	Bad					
	Moderate	.494	.088	.489	5.590	<.001
Self Esteem	Good	.232	.073	.263	3.177	.002
	Bad	.327	.077	.267	4.271	<.001
Emotional Labor						
	-.062	.053	-.074	-1.181	.239	
R2= .34		Adjusted R2 =.31		F=10.72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감정노동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6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등[22]의 간호학생 3-4학년을 대상 전공만족도 3.82점 보다 낮은 점수로 임상실습 만족이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고[15], 간호학생은 임상실습과정에서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간호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다양한 변수가 적용되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경험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 형성에 장애가 되며[23], 자신의 직업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전공과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습득이 필요하다. 이에 전공과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학습에 대한 습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교과목수업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다양한 교수법의 개발이 필요하다[2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경우 학업성적이 상위권이 하위권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전공선택에 따라 흥미나 적성으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Kang 등[24]의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고 전공만족도가 진로동기와 관련이 있었던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전공을 선택한 동기에 대한 답변으로 31.2%만이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하였고 그 외는 성적이나 주위사람의 권유, 취업 전망 등 이었다. 전공 선택동기가 적성이나 흥미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을 고려할 때[24]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학에 입문한 학생들을 위해 입학 후 간호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적용하고 추후 실습을 경험함으로써 간호학 학과생활에 갖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입학 당시는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지만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정도를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 실습과정이나 이론교과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공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3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구는 다르지만 Whang 등[25]의 간호학생 3-4학년 대상 자아존중감 연구 3.52점과 유사한 결과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를 의미하며 개인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2],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간호학 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진시키며[24,25], 간호교육에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다양한 임상상황에 심리적으로 적응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을 고려해야 한다[2].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영위함과 아울러 진취적이고도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하게 된다. 따라서 간호학생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과과정 속에 자기 존재의 의미와 자기 존중의 정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적 수준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업성적이 중상위권에서와 대학생활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적은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학생활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26], 자아존중감은 평소 자신의 소신뿐만 아니라 임상현장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후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26점으로 중간이상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대상자나 아니어서 직접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Ju 등의 간호사 대상 선행연구 3.24점과 유사한 결과이며[28], 간호사 대상 Kim 등[29]의 3.08점보다 높은 점수로 간호대학생도 실습 과정을 거치면서 간호사가 체험하는 감정노동 이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정노동의 하위영역에서 감정노동의 빈도 3.64점, 감정표현 규범에 대한 주의정도 3.08점, 감정의 부조화 3.05점 순으로 감정노동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감정노동의 빈도 정도가 3.48-3.32로 가장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며[29,29], 간호학생도 임상실습 경험에서 감정노동을 자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간호학생도 임상실습부터 감정노동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감정노동은 의료서비스 직종에서 경험되어지는 역동적 과정으로 대학교육에서부터 감정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시 간호학생의 감정노동 관련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이를 통해 임상실습 시 다양한 환자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불필요한 감정 상함으로부터 간호대학생 자신을 보호할 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감정노동 정도의 차이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감정노동정도가 높았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Ju 등[29]과 Han 등[30]의 간호사 대상 감정노동 연구에서 비종교인이 종교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종교적인 신념이 감정노동과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 학생들의 감정노동 관리를 위한 영적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와 간호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감정노동 정도가 낮았던 것은

Wi 등[10]의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감정노동이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는 연구와 관련이 있고, 간호대학생의 실습경험에서 감정노동이 간호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에 관련이 있으므로 임상실습과정에서 감정노동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감정노동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각 변수를 토대로 한 상관관계분석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자아존중감 정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정노동 정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감정노동 정도가 심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고[5],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이 전공만족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교육과 임상실습에서 감정노동을 이길 수 있는 임상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프로그램이 실습 교과과정에 연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인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업성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34%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간호학생의 감정노동경험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간호학생의 감정노동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직접 조사한 연구는 찾을 수 없어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정신적 소진, 직무만족, 이직의도, 행복지수[10,11,16,30]에 영향을 주고 있다. 추후 간호학생의 감정노동과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간호학생의 감정노동, 실습만족도 및 전공만족도 관련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정노동 측도는 간호사 대상으로 개발한 감정노동 도구를 간호학생의 임상현장실습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추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경험을 기초로 한 감정노동을 측정하는 도구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및 전공만족도를 조사하고 관련 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일반적 특성으로 학생의 학업성적, 대학생활

만족도와 주요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학업성적관리와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대학생활 만족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침과 자아존중감 강화 프로그램을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및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는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아존중감, 감정노동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만족도, 학업성적, 자아존중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감정노동 정도가 심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적순으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전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34%이었다. 하지만 감정노동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감정노동, 실습만족, 전공만족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반복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과 전공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만족도 향상과 학업증진 프로그램,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되고, 이를 실습교과과정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확대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추후 구조방정식 기법 등을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경험에 대한 감정노동 도구 개발 및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1] DOI: http://kapon.or.kr/kapon02/150112_a.pdf
- [2] M. H. Sung,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 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8, No 1, pp. 18-24, 2012.
- [3] J. A. Y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pp. 325-334, 2004.
- [4] J. W. Park, N. S. Ha, .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2, No 1, pp. 27-35, 2003.
- [5] Y. S. Kang, S. K. Hwang,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pp. 3301-3309, 2013.
- [6] M. H. Nam, M. R. Lee,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363-374, 2014.
- [7] S. Y. Lim, S. Y. Kim, H. M. Choi, "The relationships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 No 2, pp. 45-51, 2015.
- [8] Hochschild, AR, "Emotion work, feeling rules, and soci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Work Environment Health," Vol 24, No 3, pp. 43-48, 1979.
- [9] Morris JA, Feldman DC,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1, No 4, pp. 986-1010, 1996. DOI: <http://dx.doi.org/10.2307/259161>
- [10] S. M. Wi, Y. J. Yi,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on job satisfaction, intent to leave, and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8, No 3, pp. 310-319, 2012.
- [11] K. J. Lee, E. Lee,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labor, empowerment,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0, No 2, pp. 130-142, 2011. <http://dx.doi.org/10.5807/kjohn.2011.20.2.130>
- [12] H. J. Ki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13] J. H. O,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0, pp. 873-884, 2014.
- [14] B. N. Park, J. S. Park, J. R. Lee, “Factor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among nursing junior college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Vol 34, pp. 153-164, 2009.
- [15] H. Y. Koo, H. S. Im,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 pp. 311-321, 2011.
- [16] J. 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0, pp. 873-884, 2014.
- [17] H. Kim,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09-415, 2014.
- [18] Rosenberg, M. (Ed.),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 The development of the self.* Orlando : Academic Press, 1985.
- [19] J. H. Kim, H. S. Jeon, J.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happiness of physical education participants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Vol 21, No 3, pp. 119-131, 2012.
- [20] Y. J. Song,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hardship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of nurses,” Catholic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21]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22]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17-426, 2014.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417>
- [23] Barron D., West E., Reeves R.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 12, pp. 46-51, 2007.
- [24]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0, pp. 27-36, 2014.
- [25] 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Education,” Vol 12, No 3, pp. 205-213, 2006.
- [26] B. S. Park, H. N. Cho, B. J. Park,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2, pp. 1109-1117, 2015.
- [27] H. Y. Jung, J. O. Kwon,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and mental-health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4, pp. 191-204, 2013.
- [28] J. E. Ju, Y.C. Kwon, M. H. Nam,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work environment and emotional labor on happiness index.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2, pp. 212-222, 2015.

- [29] S. H. Kim, M. A. Le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Journal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3, pp. 332-341, 2014.
- [30] S. J. Han, O. S. Yoon, M. S. Kwon, M. S. Song, "Comparison of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f hospital nursing staff.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0, pp. 55-64, 2011.

남 문 희(Mun, Hee Nam)



- 2010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10년 9월 ~ 2014년 2월 : 가야대학교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대동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환자안전, 의료의 질, 감정노동
- E-Mail : ny386@hanmail.net

김 혜 옥(Kim, Hae Ok)



- 2003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인력 관리, 질 관리, 노인 간호
- E-Mail : hok503@hanmail.net